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부모들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기술적 접근

A Technical Approach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Sewol Ferry Victims' Parents

박기묵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CBS노컷뉴스

Gi-Muk Park(shootingst11@naver.com)

요약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관매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지났다. 총 304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참사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나도록 유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커뮤니케이션학적 연구는 전혀 없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실태를 조사했다. 연구결과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세월호 유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치료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월호 유족은 대인관계, 직장관계, 거주지, 가치관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참사로 인한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학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된 논의들 함께해 우리 사회에서 방치된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을 치료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세월호 참사 | 트라우마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재난보도 | 심리적 외상 |

Abstract

It has been 1 year since Sewol Ferry disaster occurred in the Gwanmaedo sea of Jindo, Jeollanamdo, on Apr. 16, 2014. The Sewol Ferry Disaster which took 304 lives and had some victims still missed has become the largest tragic accident in Korea since 2010. Although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disaster, there is no psychological communication research on the trauma of the victims' familie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actual state of the Sewol Ferry victims' parents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fter their losses of children by the disaster.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victims' families suffer from physical and psychological the PTSD but neglect treatment. The PTSD still influences their daily life. It was observed that the victims' families have a lot of difficultie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ationship with co-workers, residence, values, and other kinds of daily life. Given that the victims' families have a great deal of PTSD after the disaster, the academic circle needs to make discussions of the issue actively in order to heal the pains of the Sewol Ferry victims' families who are unattended in our society.

■ keyword : | Sewol Ferry Disaster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Trauma | Disaster News Reports |

* 본 논문은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의 세월호 1주기 기획 보도와 함께 진행됐음을 밝힙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4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5월 18일

수정일자 : 2015년 05월 18일

교신저자 : 박기묵, e-mail : shootingst11@naver.com

I. 들어가며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인근 관매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지났다. 총 304명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는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참사였다. 특히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린 선장 및 승무원의 행태와 희생자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떠나던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은 국민 정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세월호 참사는 급속한 산업성장 이면에 감춰져 있던 대한민국 안전 체계망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해양경찰청과 해수부의 대응 미숙과 비리는 한국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1]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채 침몰 이후 탈출자를 제외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결과는 세월호 참사의 분노를 한층 더 가중시켰다.

과열된 언론 취재 때문에 발생한 오보, 선정적 보도, 정치 편향적 보도 역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증가시켰다. 세월호 참사는 과거 어느 사건사고 때보다 많은 언론사가 과전파 상주하며 취재경쟁을 벌였다[2]. 그 속에서 언론은 술한 문제를 생산했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로 불리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3].

사고 이후 후폭풍은 상당했다. 부실 대응과 비리에 연루된 해양경찰청의 해체, 국무총리의 사퇴 선언, 실소유자인 유병언과 구원파 논란, 실종자 수색, 특별법, 인양 문제 등 세월호와 관련된 이슈가 뉴스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세월호 유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가 세월호 참사의 외상사건(traumatic event)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민들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자 여론은 점차 관련된 보도를 줄여갔고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비판이 아닌 비난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2014년 11월, 고심 끝에 선언된 세월호 유족의 실종자 수색 중단 선언 역시 국민의 세월호 피로도와 언론의 분위기를 의식한 결과였다. 유족들은 여론의 분위기 점차 세월호 수색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2차 인명사고를 낳을 수 있는 실종자 수색을 종료하고

인양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다[4]. 그러나 1주기가 지나도록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 특별법 시행령 문제, 세월호 인양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오히려 그사이 여론은 정치적 프레임과 결합해 세월호 유족의 심리를 압박하는 보도로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사와 재난이 계속될수록 피해자 및 주변 인물에게는 심리적 외상이 발생한다. 심리적 외상사건은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발생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감정을 경험한 사건’을 의미한다[5]. 이때 ‘외상’이란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한 후 겪는 심리적 충격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건으로 받는 인간의 정신적 영향을 표현한 개념이다. 그중에서도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힌 폭력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심리적 외상(trauma)을 입게 되는데 트라우마가 계속되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질병적 상태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발전하게 된다[2][6]. 이미 대구지하철 참사[7], 천안함 피격[8], 연평도 포격[9] 등 선형 연구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외상 증상과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세월호 참사 역시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유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상당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나도록 세월호 유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적, 커뮤니케이션학적 접근은 전혀 없는 상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지, 겪고 있다면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에 대해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대중과 언론에 세월호 유족의 심리 및 신체 외상의 현주소를 알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재난보도 시 언론의 프레임

과거에는 재해재난 시 자연적인 환경으로 발생한 천재(天災)인지, 사람에게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인지 재난의 원인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이 둘의 구분이 어려운 복합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10]. 사회 구성원들은 재해와 재난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데[11] 이는 위기 시 수용자의 미디어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 보도는 언론이 중간 전달자로 수용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때 뉴스의 메시지는 언론사의 프레임링을 거쳐 수용자에게 전달된다[12]. 고프만(Goffman)은 언론의 선택과 강조를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개했는데 이는 언론이 특정 사안을 선택, 강조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13][14]. 프레임 이론은 흔히 창문에 비유되는데 창문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창밖의 풍경이 달라 보이듯 뉴스가 일정한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론에 따르면 언론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표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선택, 강조하고 혹은 일부를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 한다[12][15][16]. 이후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 이론은 다양한 연구로 가공되고 해석됐다. 하지만 다양한 정의 속에서도 프레임에는 언제나 ‘선택(selection)’, ‘강조(emphasis)’, ‘제시(presentation)’와 같은 3가지 핵심 요소가 존재했다[14][17]. 뉴스의 프레임링 효과(framing effect)는 시청자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텔레비전과 같은 방송뉴스가 지니는 높은 권위 때문에 시청자는 텔레비전으로 습득하는 정보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인다[18]. 특히 언론이 재난보도를 프레임링 할 때는 일반적인 사건·사고 보도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태도와 기준을 요구받게 된다. 즉 재난 자체의 성격에 의해서 언론의 보도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다[19]. 이 때문에 학계와 정부 기관, 언론사에서는 재난 취재 시 언론이 올바른 보도를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인, 재해·재난보도준칙

을 제시해 매스미디어가 스스로 한계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20]. 이는 언론이 올바른 프레임으로 재난 보도의 핵심 논의를 선택하고 강조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재난보도 현장에서는 보도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내 재난 뉴스 보도는 체계적인 틀에 의해 갖춰진 보도라기보다는 단발성 소나기식 보도, 흥미 위주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묘사, 과도한 피해자 인터뷰, 주관이 지나치게 가미된 르포 형식이 주를 이루며 선정적인 프레임화 경향을 나타낸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초기부터 검증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며 뉴스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트렸다. 또한 사고 직후 충격에 빠져 있는 생존 학생에게 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했고 과도한 취재 경쟁, 근접 촬영으로 언론은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세월호 참사는 2011년 12월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이 보도한 첫 재난보도이기도 했는데 이미 종합편성채널의 선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만큼[21] 취재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지상파 또한 과도한 취재 경쟁에 편승하며 복합적인 보도 문제를 양산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은 언론을 극도로 불신하기 시작했고 ‘기레기’ 등의 용어와 함께 취재 자체를 차단하기까지 했다[22].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정치의 프레임과 맞물려갔다. 보수언론의 비판적 보도 프레임 행태는 희생자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대화 시켰다. 희생자 가족은 미디어에 보도된 내용의 진실성에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회의, 언론 보도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고 관심을 끄는 회피 양상을 보이며 극심한 사고 스트레스와 함께 스스로 고립돼 갔다.

2. 심리적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현대 사회의 물리적 안전망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안전하게 구축돼 있다. 지식이 공유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만 있으면 물리적 불안으

로부터 훨씬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안전망과 달리 현대인의 불행과 공포, 무력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불안감은 과거 세대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 트라우마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외상을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어로 ‘상처’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트라우마(trauma)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치유되지 않고 피해자의 기억 깊숙이 새겨져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유령처럼 그의 역사 일부가 되고 있다[23]. 트라우마는 매우 주관적인 정서적 경험으로 ‘삶의 파열’로 정의되기도 한다[24]. 인간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믿음과 신뢰의 상실, 타인과 연결의 상실, 꿈과 상상의 상실, 삶을 선택하는 능력 상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그들의 삶에 큰 고통을 미치게 된다[25]. 외상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은 외상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된다. 외상과 관련된 반복된 기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알코올 사용 장애, 우울증 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불러오기도 한다[9][26][27]. 상당수의 외상사건 경험자는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PTSD)로 발전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경험(reexperience :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 생각이 계속 떠올라 사건을 연상시키는 단서에 대해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반응), 회피(avoidance : 사건과 관련된 생각, 장소, 물건 등을 피하려는 행동), 반응 마비(numbing :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거나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 그리고 과각성(hyperarousal : 불면, 집중과민성 등 자율신경계가 과다하게 각성된 상태)의 세 가지 증상군이 1개월 이상 지속해야 진단할 수 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장애가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심리 문제를 나타낸다[2].

인간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특히 타인의 악의로 인해 다가온 트라우마는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이때 형성된 트라우마는 기존에 피해자들이 믿었던 사회적 안전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홀로 남겨지는 결과를 초래한다[28]. 특히 트라우마

는 전쟁, 재난 등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장기적이고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9]. 이미 선행연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피해자들의 임상양상 및 유병률 조사[30],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의 심리[7], 천안함 유가족의 심리[8],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9], 세월호 사건의 청소년 간접외상[5] 등의 조사를 통해 대형 참사의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고 문제가 되는 것을 규명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직계유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상당하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초적인 사랑의 관계’로 기본적인 사랑의 질서 속에 애착 관계를 통해 감정이 형성된다[31]. 부모 혹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을 상실하는 과정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트라우마로[32], 장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애도의 삶속에서 당사자들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노출된다. 이후 정신적·경제적 공황상태를 거치며 역할 변화, 인생 목표, 동기, 경제적 불안, 육아 교육, 성장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8][33].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참사 이후 일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유족의 심리적 외상 존재 여부 및 외상 상태, 그로 인한 실제 생활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측정해보고 내용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해석해보자 한다. 연구의 전제는 선행 연구에서 대형 참사시 유가족이 받는 심리적 외상이 막대하다는 것이 연구된 만큼[7-9], 세월호 유족의 심리적 외상도 막대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출발점을 잡았다. 세월호와 관련된 기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는 청소년의 간접외상에 관한 측정[5], 세월호 참사를 취재한 언론인의 심리적 외상[2]만 있었을 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유족의 심리상태를 최초로 측정하는 연구만큼, 참사 유족의 심리상태를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차원에서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 및 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세월호 유족들은 언론, 정부, 연구진, 의료진 등 외부 사람에 대한 경계심 높으므로 유족과 관련한 연구가 없었다. 현실적으로도 유족이 연구 설문을 진행할 만큼의 물리적 시간, 심리적·신체적 여건이 되지 않고 있었다. 동시에 300명 이상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심리상태 연구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이는 아무리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크다고 할지라도 연구과정에서 유족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때문에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논의가 쉽게 끝날 분위기가 아닌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가족의 상태를 지켜만 보는 것 역시 사회적인 무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 역시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과 대화하고 모든 것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1주기를 앞두고 보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했다. 이에 CBS노컷뉴스의 세월호 1주기 기획 보도는 세월호와 관련된 이슈 보다는 유가족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의 기대에도 충분히 부합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유족의 근황과 건강 및 심리 상태를 알리기 위한 CBS노컷뉴스의 세월호 1주기 기획 취재를 바탕으로 세월호 유족의 심리치료를 함께 하는 안산온마을센터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을 담당할 조사자가 2014년 3월 2일

부터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 지속해서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 한 후, 관련 설문에 대한 설명과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대책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됐다.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는 단원고 희생자 모임과 일반인 희생자 모임으로 양분돼 있다. 이중 단원고 희생자 모임의 경우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을 정할 때 전체 부모 회의를 거쳐 합의하는 만큼 유가족 총회 승인은 필수 절차였다. 따라서 이후 설문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19일부터 2014년 4월 5일까지 오프라인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됐다. 세월호 유족의 경우 인천 등의 다른 시의 희생자도 있지만 총 304명의 희생자(실종자 포함) 중 안산 단원고 희생자가 261명(77%)인 만큼 표본으로 안산시 단원고 유족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해도 문제가 없었다.

세월호 참사는 단원고 학생의 비중이 높은 만큼 단원고 유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원고 유족은 아이들이 소속된 반을 기준으로 부모들이 해당 반별 모임에 배속되어 총 12개의 반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 유가족 역시 담임을 맡았던 반을 기준으로 소속돼 있다. 반별 모임은 매일 각 반씩 돌아가며 안산 세월호합동분향소와 진도 팽목항분향소의 관리 및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해당 반이 당직을 서는 날에는 안산합동분향소에서 함께 모였다. 현실적으로 세월호 유족을 한시에, 한자리에 모으기 어려운 만큼 본 연구의 설문은 각 반의 대표에게 설문의 취지와 응답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각 반 대표가 소속된 반의 유족에게 설문을 전달해 다시 취합 받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필요시에는 조사자가 직접 세월호 가족 모임에 참석해 설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응답을 받았다. 세월호 유족의 경우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 높고 심리적 피로도가 높음에 설문 자체가 이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 가족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모든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가구 대표 1명으로 선정했다.

세월호 단원고 피해 학생을 조사한 뒤 총 250개의 설문을 반별로 배포한 뒤 총 약 3주에 걸쳐 153개의 설문 이 회수됐다. 회수된 설문을 바탕으로 안산온마을센터

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분석한 후 데이터 클리닝을 거쳐 총 131개의 설문이 연구에 반영했다.

2) 설문 측정

심리적 외상에 관한 선행 연구의 기본은 사건충격의 척도(IES, Impact of Event Scale)를 기본으로 연구에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반응 양상을 보고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정서적 마비·해리증상 등 4가지 척도로 구성돼 있다[2].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2개월가량 유족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며 유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첫 연구인만큼 유족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술적 조사 방식으로 구성했다. 기술적 조사와 분석적 조사는 모두 사회과학 통계분석에서 조사연구라는 방법인 측면에서 설문 방법에 속해있다[34]. 기술적 조사의 장점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서 분석의 틀을 세우기 어려울 때 먼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첫 연구로 현황과 실태 파악이 우선시 되는 만큼 기술적 분석 방법이 적합했다. 측정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분석의 빈도분석을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전 면담을 통해 관찰되는 특징을 바탕으로 현재 유가족과 관련된 사회의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최종적으로 설문은 안산온마을센터의 심리측정 도구를 중심으로 취재 기자의 실태조사 문항을 첨부, 총 3차례 수정보완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건강상태, 심리상태, 일상생활 문제 등을 측정하며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했다. 설문은 유가족과 협의 후 한 가구당 1부를 배포했으면 가구 구성원 중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심리상태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답변하는 것으로 했다.

III.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성별 기준으로 남성이 63명

(48%), 여성이 68명(5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비는 아버지와 어머니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에 반영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4명(4%), 40대 87명(66%), 50대 40명(31%)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결혼 상태를 조사한 결과 기혼 115명(88%), 이혼 11명(7%), 동거 4명(3%), 별거 1명(1%)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있는 기혼 가정이 중심을 이뤘다. 피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 희생자 유족 128명(98%), 사고 실종자 가족 3명(2%)으로 대부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었다.

2.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태

1) 신체적 상태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신체적 측면에서 나타난 증상을 바탕으로 복수측정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소화기계질환(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등) 85명(65%), 근골격계질환(관절염, 류머티즘, 디스크질환, 허리통증 등) 66명(50%), 만성두통 53명(41%), 치과계질환(잇몸질환 등) 53명(41%), 피부계질환(알레르기, 마름버짐 등) 39명(30%), 산부인과계질환(자궁근종,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 등) 26명(20%), 고혈압 27명(21%), 비뇨생식기질환(배뇨장애, 성기능 저하 등) 17명(13%), 당뇨 14명(11%), 기타질환 13명(10%),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9명(7%), 종양성질환(암, 양성종양 등) 6명(5%), 뇌혈관계질환(중풍 등) 2명(2%)으로 나타났다. 총 131명 중 7명(5%)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어떠한 신체적 질환도 겪지 않았다[표 1].

표 1. 참사 후 유가족의 신체 상태(복수 측정)

| 질환 명 | 생기거나 악화 | 변함없다 |
|-------|---------|----------|
| 소화기계 | 85(65%) | 46(35%) |
| 근골격계 | 66(50%) | 65(50%) |
| 만성두통 | 53(41%) | 78(59%) |
| 치과계 | 53(41%) | 78(59%) |
| 피부계 | 39(30%) | 92(70%) |
| 고혈압 | 27(21%) | 104(79%) |
| 산부인과계 | 26(20%) | 105(80%) |
| 비뇨생식계 | 17(13%) | 114(87%) |
| 당뇨 | 14(11%) | 117(89%) |
| 기타 | 13(10%) | 118(90%) |
| 심혈관계 | 9(7%) | 122(93%) |
| 종양성 | 6(5%) | 125(95%) |
| 뇌혈관계 | 2(2%) | 129(98%) |

반면 이런 신체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환을 겪고 있음에도 131명 중 47명(36%)의 부모는 전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47명 중 33명(70%)의 부모가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나의 건강이 별다를 의미가 없어서’에 응답했다. 이들에 부모의 경우 자식을 잃은 스트레스로 부모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 이후 체중 감소와 관련해서는 131명 중 93명(71%)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체중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28명(29%)이 ‘세월호 참사 이후 체중이 감소하지 않았다’로 응답했다. 체중 감소 원인에 대한 응답을 결과 93명 중 58명(62%)이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돼서’, 14명(15%)이 ‘음식을 보면 아이 생각이 나서’라고 응답해 대다수를 차지했다.

2) 심리적 상태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리적 측면에서 나타난 증상을 바탕으로 복수측정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분노 116명(86%), 죄책감 101명(77%), 우울 97명(74%), 무기력 91명 (70%), 짜증 90명(69%), 절망 90명 (69%), 불안 75명(57%), 죽고 싶은 생각 71명(54%) 등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참사 후 유가족의 심리 상태(복수 측정)

| 심리 | 생기거나 악화 | 변함없다 |
|----------|----------|---------|
| 분노 | 116(86%) | 15(14%) |
| 죄책감 | 101(77%) | 30(23%) |
| 우울 | 97(74%) | 34(26%) |
| 무기력 | 91(70%) | 40(30%) |
| 절망 | 90(69%) | 41(31%) |
| 짜증 | 90(69%) | 41(31%) |
| 불안 | 75(57%) | 56(43%) |
| 죽고 싶은 생각 | 71(54%) | 60(46%) |

따라서 131명 모두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심리를 겪는 97명의 부모 중 절반 이상인 63명(65%)의 부모는 자살과 같이 지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을 떠올릴 정도로 대다수 세월호 유족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위험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이런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131

명 중 114명(87%)의 부모는 전혀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114명 중 34명(30%)이 ‘심리적 치료 자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또한 31명(27%)은 ‘진상 규명 등이 우선, 심리 치료를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그밖에 25명(21%)은 ‘시간이 해결하는, 치료 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심리적 치료수준이 신체적 치료 수준보다 훨씬 더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현실 생활 문제

1) 대인관계 문제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총 131명 중 2/3가 넘는 96명(73%)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가족 이외에 친척 친구 등 대인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인관계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27%)뿐이었다. 대인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총 96명 중 절반 이상은 62명(65%)이 ‘마음 아픈데 괜찮은 척하기 힘들어서’의 이유를 뽑았다. ‘공감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 듣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사람도 22명(23%)으로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표 3].

표 3. 참사 후 대인 관계 및 직장 생활 유무

| 내용 | 한다 | 안한다 |
|-------|---------|---------|
| 대인 관계 | 35(27%) | 96(73%) |
| 직장 생활 | 39(30%) | 92(70%) |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직장생활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총 131명 중 64명(49%)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23명(18%)이 직장에 다시 복귀했다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한 경우는 39명(30%)에 불과했다. 그밖에 5명(4%)은 원래 직장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다녔다가 다시 휴직한 응답자 8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2명(48%)이 ‘아이 생각 등으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에 응답을 했다. 이어 ‘회사와 직장 동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18명

(21%), ‘직장동료의 시선이 불편해서’ 16명(18%) 등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부분은 ‘유가족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란 항목에 5명(6%)의 부모가 응답하며 직장을 다진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었다.

2) 세상에 대한 가치관 문제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세상의 가치관 체계 변화에 대해서는 총 131명 중 단 1명(1%)이 무응답을 했지만 나머지 유족의 경우 모두 사고 이후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50명(38%), ‘나는 한때 만족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항상 불행하다’ 33명(25%), ‘이 세상은 믿지 못하고 위험한 곳이다’ 31명(24%), ‘그때 일은 나로 인해 생긴 일이다’ 10명(8%), 기타 1명(1%) 등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참사 후 바뀐 가치관

| 심리 | 명(%) |
|--------------------------|---------|
|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 50(38%) |
| 한때 만족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항상 불행하다 | 33(25%) |
| 세상은 믿지 못하고 위험한 곳이다 | 31(24%) |
| 그 일은 나 때문에 생긴 일 | 10(8%) |
| 기타 | 1(1%) |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총 131명 중 50명(38%)이 ‘세월호 참사 이후 변한 것은 없고 아이들의 죽음이 잊혀 가는 것’을, 36명(27%)이 ‘진상규명 이 안 된 1년 뒤’를, 24명(18%)이 ‘일이 마무리된 후 피해자 가족이 모두 흠어질 때’를, 9명(7%)이 ‘다른 자녀들이 잘 못 될 때’를, 각각 3명(2%)이 ‘세월호에 대한 외부 평가를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 ‘각종 기념일이나 행사’ 등을 뽑았다.

3) 일상생활 회복 정도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거주지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총 131명 중 40명(30%)이 이사를 갔고 91명(70%)이 이사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간 이유를 살펴본 결과 40명 중 절반 이상인 26명(65%)이 ‘추억을 떠올리는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워

서’를 응답했다. 그 밖의 응답은 각각 2명(5%)씩으로 ‘세월호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웃이 바라보는 동정의 눈길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가족들이 전화 등 요구를 해서’,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가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9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2명(46%)이 ‘아이에 대한 추억의 방울 치울 수 없어서’에 응답을 했다. 이어 ‘어디를 가나 같을 것 같아서’가 24명(26%)을 차지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이유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유가족 활동을 위해서’ 6명(7%)이었다.

세월호 유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측면 회복 정도를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총 131명 중 54명(41%)이 ‘전혀 회복 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1점에 응답했다. 이어 23명(18%), 22명(17%), 13명(10%), 13명(10%), 4명(3%) 등으로 2점에서부터 6점까지 응답했다. ‘완전히 회복됐다’에 가장 가까운 8점, 9점에 응답한 부모는 각각 1명(1%)에 불과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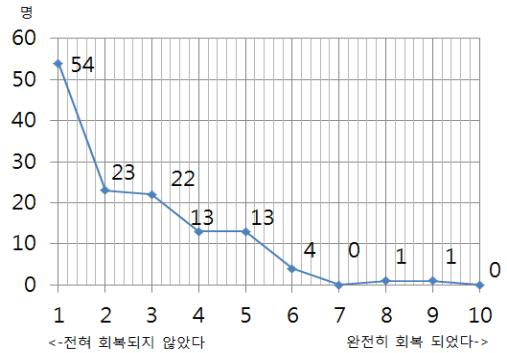


그림 1. 참사 후 일상 회복 정도

따라서 131명의 응답자 중 대다수인 99명(76%)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 이들이 겪고 있는 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분석 및 제언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발생한 현실 생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살펴본 결과 세월호 유족이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유족의 경우 참사 이후 발생한 스트레스 장애로 신체적으로 각종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응답한 세월호 참사 유족의 절반 이상이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관절염, 디스크, 허리통증 등의 근골격계질환 고통도 호소했다. 가장 많은 응답치를 나타낸 소화기계 질환은 참사 이후 2/3 이상이 체중이 감소했음을 나타낸 응답치를 함께 고려해볼 때 참사와 세월호 유족의 체중감소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체중 감소 원인을 입맛이 없고 소화기 되지 않는 소화성 장애를 문제로 꼽기도 했다. 게다가 압, 양성종양 등의 중앙성질환과, 중풍 등의 뇌혈관계질환도 나타난 것으로 비취 볼 때 세월호 유족의 건강상태는 우려할 수준이며,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부모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광화문 광장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각종 집회나 행사에 참여해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청하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1/3 이상의 부모는 신체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자식이나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적 질환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세월호 유족의 신체적 건강상태 회복에 대한 치료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상태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보다 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었다. 연구 결과 세월호 유족 어느 누구도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지 않은 부모가 없었다. 부모들 대부분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이어 죄책감, 우울, 무기력, 절망, 불안 등 심리적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치료하는 부모는 신체적 질환보다 더욱 적었다. 연구에 응답한 87%의 부

모는 심리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고, 아직 심리치료를 받을 시기가 아닌 점을 꼽아 전혀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는 신체적 치료 거부(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심리적 회복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70% 이상이 회복되지 않음에 응답을 했다. 이는 심리적 부담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세월호 인양 문제, 조사특위 권한 문제와 연결해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사안과 맞물려 아직도 진행형이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게다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배보상문제와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의 행태는 진실규명과 인양을 촉구하던 세월호 유족의 심리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해석할 수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부모가(54%) 세월호 참사 이후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마저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비취볼 때 이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많은 생존자를 구조했던 의인 김동수씨도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과 연결해볼 때 지금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방식에 문제가 있고, 더욱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벌어져야 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세월호 유족은 참사 이후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대인관계, 직장생활, 거주지, 세상에 대한 가치관, 미래관, 음주·흡연, 일상생활 회복 정도에서 모두 문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들 대인관계에서는 2/3가 넘는 가족(73%)이 가족과 세월호 유족 모임 외에 친구나 친척, 기타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유족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아픈데 대인관계를 하면 괜찮은 척을 해야 되고, 공감되지 않은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해서 아예 대인관계 자체를 피하고 있었다. 대인관계문제는 직장생활문제로 확장돼 나타났는데 절반이 넘는 유족이(67%) 직장에 복귀 하지 않았거나 복귀 했더라도 다시 사직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게선 계속해서 떠오르는 아이의 생각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직장 동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직을 한 큰 이유로 설명했다. 직장 동료의 시선이 불편하다(18%)고 말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연관돼 직장생활까지 어렵게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배보상문제로 정부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 문제 또한 세월호 유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살았던 거주지의 경우 그 자체가 추억으로 존재하여 이사를 가거나,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삶의 터전 자체가 세월호 유족에게는 스트레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일 거주하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이사 유무를 떠나서 관련 심리치료가 필요했다.

세월호 유족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 또한 참사 이후 스트레스로 크게 바뀌었다. 연구 결과 세월호 유족의 경우 참사 이후 자신의 나약함, 불행함, 자신의 책임 등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잃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까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월호 유족의 비판적·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아 줄 치료의 필요성이 필요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어쩌면 201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발생한 가장 큰 참사며 국민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희생자 대다수가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점에서 간접적으로 아이를 가진 가족 구성원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희생자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사고 이후 끝나지 않는 각종 논란 속에서 지속적해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이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일상생활적 측면에서 최초로 다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에 큰 초석이 될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에 처해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치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실에서 겪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먼저 해소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단절된 직장으로 복귀를 돕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세월호 유가족의 퇴직, 사직 등으로 경우 실질적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다른 동료와 쉽게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하는 현 상태에서는 유가족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 일자리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잡고 일상적인 생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유가족이 불신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이 무엇보다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한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면 그 속에서 오해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동시에 언론은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보도하고 세월호 이슈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월호와 관련된 투명성이 회복되면 유가족이 잃었던 신뢰는 다시 회복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지니고 있다. 첫째, 세월호 유족의 현황을 조사했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의 측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논문은 설문을 통해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측정치와 화두를 제시하며 상관관계적 해석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한지 지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면서 참사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 이유는 세월호 유족의 설문 자체가 지금까지 진행된 사례가 없어 선행연구의 분석이 없었고 이전의 모습보다는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참사 이전의 모습이나 인과관계보다는 현황을 먼저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측정을 위한 참사 이전의 실태와 심리, 그리고 각종 조사방법이 사용돼 체계적으로 조사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원고 희생자 유족만 설문해 참여해 일반인 유족, 생존자 가족 등 다른 차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집단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비록 그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커

조사나 연구가 힘들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를 함께 측정하길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방법에서 안고 있는 직접설문방식의 윤리적 문제 역시 보완될 부분이었다. 뉴스 취재와 함께 진행된 설문 방법보다는 심리상담전문가를 통한 간접조사 방식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더 적합할 수 있었다. 직접조사 방식은 피해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인터뷰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간접 조사 진행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가족의 심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지났지만 아직 인양문제, 세월호 특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들의 부모가 겪는 고통을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김병섭, 김정인, “기획논문 :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 :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3호, pp.99-20, 2014.
- [2] 배정근, 하은혜, 이미나,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5호, pp.417-446, 2014.
- [3] 조윤희, “세월호 ‘기레기’(기자+쓰레기)를 위한 변명”, 미디어오늘, 2014.
- [4] 조옥희,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수색 중단 수용 배경은, 데일리한국, 2014.
- [5] 손승희,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pp.269-294, 2014.
- [6]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Revise, Washington, D.C., 2000.

- [7] 최용용, 홍종관, 김준경, 이수연,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인지행동적 위기상담의 효과”,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pp.505-518, 2004.
- [8] 이윤수, “천안함 사건’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 한국가족복지, 제43권, pp.87-110, 2014.
- [9] 안류연, 조용래, “연평도 포격 피해 주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심각도와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제33권, 제4호, pp.875-890, 2014.
- [10] 조은희, “국내신문의 일본 대지진·원전사태 보도특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pp.117-143, 2012.
- [11] 이소윤, 김희정, “언론보도 프레임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분석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조치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 PR학회, 제16권, 제4호, pp.51-90, 2012.
- [12] 박은혜, 김영옥, “언론프레이밍과 이지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8권, 제2호, pp.78-118, 2007.
- [13] E. Goffman, *Frame analysis :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London: Harper and Row, 1974.
- [14] 이민규, 육은희,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한·미간 비주얼 뉴스 프레임 연구 : 연합뉴스와 AP통신의 보도사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5권, pp.216-254, 2014.
- [15] Robert M. Entman,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3, No.4, pp.51-58, 1993.
- [16] 이소윤, 김희정, “언론보도 프레임을 통한 지방정부의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분석 :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조치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 PR학회, 제16권, 제4호, pp.51-90, 2012.
- [17] T. Gitli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18] 우형진, “텔레비전 뉴스 시청이 시청자의 건강증진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2호, pp.308-334, 2007.

[19] 백선기, 이옥기,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언론론의 재난보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8권, pp.7-54, 2012.

[20] 김은희, 반현,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언론의 위해 식품 보도 태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17권, pp.234-257, 2012.

[21] 박기묵, 김광재, “방송시장의 경쟁구조와 뉴스 콘텐츠 품질 :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영상뉴스 비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14권, 제12호, pp.706-722, 2014.

[22] 박응진, “과열 취재” 기자들, 학부모·가족에 못매”, 뉴스1, 2014.

[23] B. Cyrulnik, *Warum die Liebe Wunden beilt*, Weinheim: Beltz, 2006.

[24] E. Lindemann, “Symptomatology and management of acute grief,” *American Psychiatry*, Vol.151, No.6, 1944.

[25] 최광현, “부모상실의 트라우마에 대한 트라우마 가족치료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3-41, 2009.

[26] 은현정, 이선미, 김태형, “일 도시 지역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4호, pp.581-591, 2001.

[27] 주혜선, 안현의,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7권, 제1호, pp.235-257, 2008.

[28] 최남희, 유정, “트라우마 내러티브 재구성 과 회복효과”,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pp.285-309, 2010.

[29] 한인영, 장수미, 최정숙, *위기개입*, 서울: 나눔의 집, 2008.

[30] 김종남, 이민수, 신동균, “삼풍 사고 생존자들의 임상양상 및 성격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16권, 제2호, pp.183-195, 1997.

[31] B. Hellinger, *Der Austausch*, Heidelberg:

Carl-Auer-Systeme Verlag, 2002.

[32] M. Leist, *Kinder begegnen dem Tod*, Gütersloh, 1979.

[33] S. R. Shuchte and S. Zisook, *The course of normal grief*, pp.24-43, in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93.

[34] 최현철, *사회과학 통계분석*, 서울: 나남, 2013.

저 자 소 개

박 기 묵(Gi-Muk Park)

정희원



- 2015년 5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재학
- 2010년 6월 ~ 현재 : CBS노컷뉴스 기자(스마트뉴스팀)

<관심분야> : 종합편성채널, 미디어교육, 인터랙티브 저널리즘, 미디어산업